

卷之三 故事

朴 星 來

書雲觀志 卷三은 서운관과 관련된 역사 기록을 모아 놓고 있다. 분량으로 볼 때 이 부분은 書雲觀志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영인본으로 전체 322 페이지의 책 가운데 121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다른 부분의 기록보다도 많은 내용을 담고있는 것이다.

서운관과 관련이 있는 기록이라지만 여기 포함된 기록은 고려 때나 그 이전의 것은 없다. 엄격히 1392년(太祖 1년)부터 1811(純祖 11)년까지만의 기록이 나열되어 있다. 이 기록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분류 없이 年代順으로 나열되었을 뿐이다. 나열된 記事數는 모두 184 항목이며 이 가운데는 한 줄 찌리의 짧은 것으로부터 1 페이지가 넘는 긴 것까지가 섞여 있다.

대개 각 항목에는 出典이 밝혀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本觀日記, 本觀騰錄 같은 書雲觀의 자체기록은 모두 10회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引用書가 훨씬 많다. 이 책이 편찬된 1818년에는 이미 서운관이 보관하고 있던 기록들이 거의 없어졌거나 이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다.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은 國朝寶鑑으로 28회, 그 다음은 文獻備考 11회, 東閣雜記 7회의 순서이다. 그 밖에는 모두 5회 이하 인용된 책들이 대부분이며 한번씩 인용된 경우가 제일 많다. 다음은 書雲觀志에 인용된 그밖의 책 이름이다.

五山說林, 北路陵殿志, 筆苑雜記, 芝峰類說, 陽村集, 海東名臣錄, 曆象本要, 輿地勝覽, 退陶言行錄, 聽天雜錄, 國朝謨烈, 歷代摠要, 青坡劇談, 謏聞鎖錄, 巧事撮要, 栗谷日記, 象村集, 竹窓閑話, 牛溪集, 懲愆錄, 荷潭錄, 國朝典談, 菊堂俳語, 龍洲集, 月窓夜話, 藥泉集, 丁酉封事, 寄齋雜記, 平壤志, 圃隱集, 白沙集, 日月錄, 遲川集, 逸事記聞, 鶴谷集, 同春集, 息菴集, 老峯集, 明齋集, 閒居漫錄, 明谷集, 陰厓雜記, 慵齋叢話.

또한 이 부분에 기록된 것을 王代別로 분류해 보면 대체로 긴 在位기간을 가졌던 王代에 더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좀 특이한 현상은 燕山君시대에 관한 기록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비슷한 형편이라 할 수 있는 光海君의 경우는 다음 王代인 仁祖代의 첫 기사 다음에 이어 4件的 기사가 간단히 남아 있는 데 반해 燕山君시대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또 定宗, 文宗, 端宗, 燕山君, 仁宗의 代에는 하나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음에 각 王代의 기록의 수와, 그 기록이 차지하고 있는 行數를 살펴 보자.

太祖 3件 50行, 太宗 9件 81行, 世宗 12件 95行, 世祖 6件 48行, 睿宗 1件 5行, 成宗 10件 50行, 中宗 5件 32行, 明宗 5件 24行, 宣祖 12件 107行, 光海君 4件 14行, 仁祖 10件 107行, 孝宗 4件 47行, 顯宗 9件 108行, 肅宗 9件 143行, 景宗 1件 5行, 英祖 22件 213行, 正祖 8件 138行, 純祖 4件 108行.

後代로 내려갈수록 더 기록이 상세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전체를 비교해 보면 英祖代에 가장 많은 기록과 분량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시기가 최근인데다가 英祖의 在位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특이한 것은 없다.

위의 통계를 보면 이 故事 부분은 134 件의 기록이 1,375 行에 걸쳐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34 件이라지만 실제 기록 件數는 이보다는 훨씬 많다. 특히 災異기록의 경우 7~8개 기록이 한가지인 듯 줄줄이 이어져 기록돼 있어 行을 바꿨을 기록의 성격이 분명히 다를때만 別個 기록으로 계산한 本篇의 통계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다. 또 一行에는 18 字가 들어 있는 本版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 行이 2 行으로 나뉘어 脚註 모양으로 기록된 부분도 많아서 실제 글자수는 단순한 계산보다 많다. 즉 $1,375 \text{ 行} \times 18 \text{ 字} = 24,750 \text{ 字}$ 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 된다.

다음은 이 기록들을 몇가지로 分類해 대개 어떤 內容을 담고 있는지 살펴 보자.

(1) 制 度

우선 書雲觀은 天文 曆算 등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로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며, 이들의 연구와 공부를 장려하는 일을 맡기 마련이었다. 이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 故事편에는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기록 가운데 첫사건으로는 1460(世祖 6)년 吏曹에서 數學者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린 경우가 있다. 六藝의 하나인 수학은 世宗代만해도 열심히 장려해 효과를 보았지만 현재는 아주 실망스런 상태에 떨어졌다면서 수학의 연구를 장려해서 탁월한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는 加資를 하자고 吏曹가 건의했고, 이를 世祖 임금이 따랐다는 것이다. 또 1470(成宗 1)년에는 申叔舟의 건의에 따라 天文學者들을 다른 자리에 임명하지 않고 그들의 전문분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일도 있다. 1489(成宗 20)년에는 영의정 尹弼商의 건의를 채택하여 천문관들이 측후할때 사용한 건물을 복수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觀象監에는 2칸짜리 누각이 있어 관측소로 써왔는데 그것이 남아 쓰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복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書雲觀日記의 기록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천문 관측관에게는 5년에 한 번 겨울 털옷이 지급되었다. 世祖 때 임금이 겨울에 관측하다가 觀天臺 위에 오르려 줄고 있는 天文官을 보고 임금의 털옷을 벗어 덮어 주었던 일이 있고, 그 후 3년마다 한 번씩 털옷이 지급되었으나 그 제도가 5년으로 바뀐 것이다.

天文官의 실력이 모자란다는 불평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29(英祖 5)년에도 侍講官 李宗城이 이 점을 지적하여 이를 장려하라는 王의 명령을 받아냈다. 天文學 장려 시책은 1742(英祖 18)년에도 논의되었다. 英祖는 영의정 金在魯와 左議政 宋寅明의 적극적 발언과 함께 1~2명을 선발하여 격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여기에 註釋이 붙어 있는데 이때부터 東西班으로 天文官이 채용되었다는 내용이다. 1758(英祖 34)년 5월 王은 金兌瑞, 安國賓, 李德星에게 직접 시험을 보이고 그 결과에 만족하여 이들에게 上弦弓을 하사했다. 그리고 다음날 王은 教旨를 내려 天文學에 밝은 사람을 자리가 나는데로 調用하라고 지시했다. 英祖는 1771(英祖 47)년 金兌瑞의 죽음을 슬퍼하여 그에게 祭需를 하사하고 그의 아들 金濟恭의 특채를 명했다.

正祖는 雜科라 하여 소홀하게 둘 수는 없다면서 선발제도의 엄격한 시행을 명한 일이 있다. 1777(正祖 1)년 봄의 일이다. 雜科의 시행에는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엄격한 시행하라는 지시는 1780년의 기사로도 남아 있다. 命課學을 권장하는 조치도 시행되었다. 1797(正祖 21)년 관상감 제조 李時秀는 命課學의 합격자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여 初試 합격자를 4명에서 8명으로, 그리고 覆試 합격자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자고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또 이 건의에서 李時秀는 새로 편찬된 協吉通義와 裒天綱을 試講 교제로 채택하자고 주장하여 관철시킨다.

다음으로는 曆法에 관한 기사들이 몇가지 있다. 우선 1457(世祖 3)년 世祖가 禮曹參判 李純之와 서운관 副正 金石梯를 시켜 일식과 월식의 계산방법을 정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유명한 일이지만 1644(仁祖 22)년 관상감 提調 金堉은 역법을 고칠 것을 건의했다. 중국에 파견하는 使行便에 日官을 따라 보내서 중국의 새 曆法에 대한 비밀을 탐문해 오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뒤에 時憲

曆 채용의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時憲曆의 채용 이후에도 계산상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지 1741(英祖 17)년 觀象監에서는 보고서를 올려 근래에 交食의 시간계산과 節氣의 시각계산 등에 있어 큰 착오가 나고 있다면서 이후부터 해마다 曆官 가운데 수학에 능통한 사람을 1명씩 중국 使行에 따라 보내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 건의는 채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中宗代에는 候氣法도 실시되었다. 1519(中宗 14)년의 기록에 의하면 候氣를 위한 三重土室은 처음에 金安淵의 건의에 따라 만들었다. 土室의 건조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덧붙여져 있지만 그 측정방법은 잘 밝혀져 있지 않다. 중요한 측정결과 기록은 서울의 北極高度에 관한 것이 있다. 1713(肅宗 39)년 淸使 何國柱가 象限大儀를 사용하여 서울 종로의 北極高度를 측정한 바 37度 39分 15秒의 값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는 뒤이어 약간의 설명이 첨가되어 있는데 특히 世宗代에 천문관 尹士雄, 崔天衢, 李茂林 등을 마니산, 백두산, 한라산에 보내 각 지역의 北極高度를 측정했다는 사실도 덧붙여 있다. 그러나 이 사실만 기록에 남았을 뿐, 그들의 측정치는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北極高度란 지금 우리의 北緯에 해당한다. 1811(純祖 11)년 관상감은 처음으로 曆法의 補正에 歲差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歲差 보정을 연구해 오게 하자는 것이다.

(2) 儀 器

관상감은 天文·曆算은 물론 地理와 시간의 측정 등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측기구 등이 필요했다.

먼저 太祖의 즉위에 이어 곧 만들어진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天文圖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1395(太祖 4)년에 돌에 새긴 것이 있다고 이 기록은 전하고 있다. 또 끝이어 1433(世宗 15)년에도 돌에 天文圖를 새겼다는 기록이 있다. 현재 남아 있어 1985년 國寶 제228호로 지정된 天象列次分野之圖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1395년과 1433년에 각각 새겼다는 天文圖가 지금은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1395년에는 天文圖를 만들어 아직 돌에 새기지는 않았던 것을 1433년에서야 그대로 돌에 새겨 오늘날까지 남긴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서울 시민에게 시간을 알려 주기 위한 鍾은 처음 1395(太祖 4)년 만들었다. 이 종은 大市街에 閣을 지어 걸어 두고 새벽과 저녁에 종을 울려 시간을 알려 주었는데, 이 기사 끝에는 陽村集으로부터 인용한 銘과 序文이 붙어 있어서 이것이 權近의 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1458(世祖 4)년에는 새로 큰 종을 만들어 閣에 걸고 새벽과 저녁에 종을 쳤다는 기록이 있다. 1395년의 鍾과 1458년의 鍾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함께 지금의 鍾閣에 걸려 있었다는 뜻인지, 또는 다른 의미인지 확실치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기록에 이어 割注로 들어 있는 기사는 聽天雜錄에서 인용된 것으로 조선 前期의 鍾에 대해 몇가지 정보를 알려 준다. 원래 경복궁의 光化門 위와 鍾樓 위에 각각 大鍾이 있었고 이들은 壬辰亂에 일본군에 의해 녹여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또 그밖에도 지금의 貞洞에 있던 興天寺 터와 圓覺寺 터에도 사찰이 없어진 다음에도 大鍾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鍾에 대해서는 1748(英祖 24)년에서야 다른 기록이 보인다. 興仁門 안과 光化門 밖에 있는 鍾을 각각 집을 지어 보관하라는 王命이 그것이다. 이 기사에는 割注로 書雲觀日記가 인용되어 있는데 「興仁之鍾과 光化之鍾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새벽과 저녁에 울리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되어 있다.

관측을 위한 天文기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世宗代에 여러가지가 제작되었다. 世宗 14(1432)년 기록에 나와 있는 기구와 시설들은 먼저 木簡儀를 만든 다음, 이를 바탕으로 銅製를 다시 만들었다. 또 慶會樓 북쪽에 돌을 쌓아 臺를 만들고 그 위에 이 銅簡儀를 설치했고 그 서쪽에는

40尺 높이의 銅表를 세웠다. 다시 그 서쪽에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渾儀와 渾象을 두었다. 그리고 慶會樓 남쪽에는 報漏閣을 지어 그 안에 自擊漏를 두었고, 千秋殿의 서쪽에는 欽敬閣을 지어 玉漏를 설치했다. 그밖에 해시계로 仰釜·懸珠·天平·定南 日晷가 제작되었고, 낮과 밤의 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日星定時儀와 그것을 간략하게 만든 小定時儀, 또 簡儀를 간략히 만든 小簡儀와 휴대용 물시계 行漏 등을 7년에 걸쳐 만들어 戊午(1438)년에 완성했다고 기록해 있다. 天文기구와 각종 시계 밖에도 測雨器가 역시 世宗代에 제작되었다. 그 크기 등이 1442(世宗 24)년 기록으로 들어 있다.

世祖는 자기 스스로 窺衡과 印地儀를 만들었다고 1467(世祖 13)년 기록에 나온다. 이것은 천문기구가 아니라 土地의 측량기구였다. 1491(成宗 22)년에는 窺標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밤에 하늘을 보면 어느 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아 그 時間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 설명되어 있다. 기구라기보다 별자리 표시판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世宗代에 만든 천문기구들은 고장난 것도 있고 또한 가지 밖에 없기도 하여 한 별씩 더 만들어 두자고 1526(中宗 21)년 觀象監이 제의했고, 이를 받아들여 새로 만든 기구들은 內觀象監에 두게했다. 明宗 5(1550)년에는 몇 가지 補正작업이 있었다. 宗廟 앞의 仰釜日晷는 中星의 관측 결과에 맞게 바로 잡았고, 昌慶宮에 있는 새 물시계도 조정되었다. 이 물시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注로 붙여져 있다.

1601(宣祖 34)년 영의정 李恒福에게 儀器들을 다시 갖추게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임진란으로 거의 모든 관상감의 기구들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世宗代의 천문 기타 기구들이 다시 만들어진 직후 이번에는 西洋式 기구들이 조금씩 조선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1631(仁祖 9)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 온 鄭斗源이 서양의 千里鏡, 自鳴鍾과 기타 책들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그의 보고로 인용되어 있다. 孝宗 8(1657)년에는 崔攸之의 방법에 따라 璿璣玉衡을 만들게 했다. 원래 임금은 洪處尹에게 이를 만들게 했는데 잘 맞지 않아 다시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이때 崔攸之 또는 崔維之가 만든 전기옥형이란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지절로 움직이게 만든 渾天儀였다. 1664(顯宗 5)년에는 관상감에서 이 혼천의를 다시 고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임금은 宋以穎, 李敏哲에게 천문 기구들을 다시 만들라 명령했다.

顯宗 10(1669)년 宋浚吉이 欽敬閣의 옛 제도를 다시 만들 것을 건의했다. 이에 임금의 명에 따라 李敏哲은 水力으로 움직이는 자동 혼천의를 만들었고 宋以穎은 水力 대신 서양의 자명종에 있는 방식으로 톱니바퀴를 써서 이를 제작했다. 1687(肅宗 13)년에는 李敏哲에게 顯宗 때 만든 渾天儀를 고쳐 만들게 하여 이를 昌德宮의 熙政堂 남쪽에 새로 齊政閣을 짓고 그 안에 설치하게 했다. 이 기사에는 長文의 齊政閣記와 自鳴鍾銘이 부록되어 있다. 齊政閣記는 당시의 재상 崔錫鼎의 글을 모은 明谷集에 실려있음이 밝혀져 있고, 自鳴鍾銘은 여기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역시 같은 책에서 뽑은 것으로 보인다. 숙종 30(1704)년에는 安重泰, 李時華를 시켜 渾天儀를 다시 주조하게 했다. 英祖 8(1732)년에는 이 혼천의를 다시 다듬게 하여 揆政閣을 짓고 그 안에 설치케 했는데, 揆政閣은 慶熙宮의 興政堂 동쪽에 세워졌다. 간단한 御製 揆政閣記가 부록되어 있다. 1777(正祖 1)년에는 齊政閣의 혼천의를 重修했다. 이것은 1687년의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서양식 시계나 천문기구 등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1723(景宗 3)년에는 서양식 間辰鍾과 水銃을 제작한 것이 기록돼 있다. 間辰鍾은 낮이나 밤이나 시간을 재는 데 편리한 시계이며, 水銃이란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려 불을 끄는 데 이용하는 장치라 설명되어 있다.

(3) 風水地理

풍수지리는 書雲觀이 담당한 또 하나의 중요 분야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록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開國初의 사건으로는 無學이 漢陽을 서울로 정했다는 五

山說林 등의 기록이 상세하다.

1402(太宗 2)년에 書雲觀은 고려초의 예를 들어 密記에 있는 70 개의 사찰 이외에는 모든 사찰의 土地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 軍資에 쓰도록 하고 奴婢를 정부 기관에 소속케 하자고 건의해 관철시켰다. 1417(太宗 17)년에는 葬書들마다 서로 異論을 담고 있어서 혼란이 심함을 들어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론이 일자 太宗은 좌의정 朴堧 등을 시켜 書雲觀의 陰陽書를 [검토하여 요망스런 것들은 모두 불태워 버리라고] 지시했다. 또 이듬해 1418년에는 太宗 부부가 귀여워하던 아들 誠寧大君이 죽자 이 장례일을 정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음을 기록에 남겼다. 1420(世宗 2)년 王大妃의 喪을 당하여 왕은 능의 곁에 僧舍를 지을 것을 희망했으나 大臣들의 의견을 들은 끝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문제는 꼭 風水地理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葬地 문제 또는 葬禮의 擇日 등이 모두 書雲觀 소관이었음을 생각할 때 함께 고려될 분야라 하겠다.

世宗은 風水地理에 지나치게 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1444(世宗 26)년 기록으로 드러난다. 風水家가 서울의 地脉을 복돋기 위해 宮城의 北路를 폐쇄하고 城 안에 假山을 만들며 시내의 개울에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게 하여 明堂의 물은 깨끗하게 지키자고 건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集賢殿校理 魚孝瞻은 天命을 主脉으로 삼고 民心을 품에 안으면 되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론을 편 것이다. 世宗은 풍수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國朝寶鑑은 전했다.

다음 기록 역시 王의 총명한 판단을 예찬한 내용이다. 成宗은 先王 睿宗의 陵을 만들면서 中叔舟 등이 능 근처의 다른 민가의 무덤들을 모두 없애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금의 말에 의하면 國土는 일정한데 자꾸 葬地만 넓게 잡는다면 경작지는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宣祖의 왕비 懿仁王后의 장례는 상당한 진통 끝에 겨우 葬地를 확정해 거행되었다. 1600(宣祖33)년 왕비의 葬地를 위해서는 地官들이 좋은 후보지를 비밀리에 추천하되 士大夫와 귀족의 墓山을 가릴 것이 없다는 주문이었다. 이렇게 추천된 후보지를 관계관들이 빠짐없이 답사하게 되었는데, 임금은 鄭夢周의 묘소만은 답사할 필요가 없다고 이를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또 이어 割注로 첨가된 기사에 의하면 다른 곳을 답사할 때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는 등 조짐이 나쁘더니 健元陵으로 정하자 날씨가 좋아지고 따뜻해져 山役할 일꾼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다. 1632(仁祖 10)년에는 繼妃 仁穆王后도 함께 健元陵에 장사지냈다.

1698(肅宗 24)년 2월 왕은 근래에 士大夫들이 지나치게 風水사상에 빠져 遷葬하는 수가 많으니 이를 엄히 금하라고 명했다. 이어 白沙集에서 李恒福의 風水論이 인용되어 있다. 그는 짧은 날 風水에 깊이 빠져 여러 관계서적을 읽었으나 그런 뒤에서야 그 허망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英祖 2(1726)년에는 胎室을 加築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1731(英祖 7)년에는 坡州에 있던 長陵을 交河로 옮겼다. 英祖는 1735(英祖 11)년에는 明陵에 행차했는데, 지금 西五陵에 있는 이 陵에는 肅宗이 묻혀 있다.

英祖는 王室의 葬地 문제에 관심이 컸지만 이미 王陵의 후보지로 지정했던 80 개소가 50 개소로 줄어든 데 대해 그리 패념하지는 않았다. 1747(英祖 23)년 기록에 의하면 이미 王陵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던 80 개소 가운데 士大夫들이 犯하여 묘를 쓴 곳이 30 개소나 되었다. 이들을 이장시켜 80 개소 모두를 보존하자는 건의를 王은 이미 장사지낸 집안에 끼칠 피해를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758(英祖 34)년 왕은 書雲觀에 명하여 앞으로 王家의 胎封은 같은 代의 경우 같은 언덕에 2~3 步 거리만 두어 만들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英祖는 1765(英祖 41)년 앞으로 藏胎處로는 宮苑 안의 깨끗한 곳을 골라 질그릇에 넣어 매장하고 기록에 남기면 충분하니 그렇게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는 그해 5월 景福宮에서 封胎 石函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내려졌던 것으로 王은 國初에 太宗이 陵寢石을 커다란 한 덩어리를 쓰던 것을 운반하기 쉽게 둘로 자

르게 지시한 예를 들며 간소화를 추진한 것이다. 1770(英祖 46)년에 왕은 陵寢에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 寺刹을 새로 짓는 일이 없도록 命하고, 이를 금하지 못한 관계 관리를 엄중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4) 旱 魃

농업 국가인 朝鮮朝가 가뭄을 심각한 재앙으로 여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觀象監이 가뭄에 대한 담당 관서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가뭄은 흔히 政治의 잘못으로 비롯한다는 災異說的인 해석이 지배적이었던 사실은 여기 기록된 경우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1398(太祖 7)년에는 가뭄이 심해서 궁궐의 건축을 중단했다. 또 太宗은 가뭄이 심해지자 1401(太宗 1)년 스스로 술을 끊음으로써 나라에 모범을 보였다고도 기록돼 있다. 그는 또 1410(太宗 10)년 여름 가뭄이 심하자 다시 술을 끊고 가뭄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 있다면서 가벼운 죄인들을 석방하게 했다. 이어 1413(太宗 13)년에는 王은 홍수와 한발 등은 모두 임금의 不德으로 일어나는 災異일 뿐이니 禱雨행사 등은 취소하고 정치를 잘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서 특히 僧巫들을 동원한 禱雨행사를 반대했다.

太宗이 한발에 대해 특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것은 1416(太宗 16)년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이 해에는 가뭄이 들자 求言을 하고 신하 몇명에게 자기가 가뭄 때문에 편히 먹고 자지도 못하고 있음을 설명한 대목이 있다. 이런 과정이 바로 “太宗雨”의 전설을 만들어 낸 것임은 물론이다. 東國歲時記 등의 후세 기록에 자주 나오는 이 전설은 여기에도 1422(世宗 4)년 5월 10일에 있었던 일로 기록돼 있다. 이 날은 太宗이 죽은 날인데 上王은 죽으면서 때마침 가뭄이 심하자 [자기가 죽어 하늘에 고하여 비를 내리게 하겠노라]며 운명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때부터 해마다 5월 10일에는 비가 내렸는데 2백년이 지난 宣祖 辛卯(1591)년에는 비가 오지 않아 識者들이 몰래 걱정했다는 기록이 筆苑雜記에서 인용되어 있다.

다음 가뭄에 대한 기록은 世宗·世祖 등을 건너뛰어 成宗代의 것이 보인다. 1474(成宗 5)년 기우제에 응해 비가 조금 내렸으나 충분하지 못해서 임금은 옛 방식에 따라 들에 뽕소 나아가 기우제를 지내려 했다는 기록이다. 1482(成宗 13)년 7월 王은 女巫를 동원한 祈雨를 중단시켰다. 禮曹에서 전례를 들어 실시하기를 주장하자 임금은 祖宗朝의 전례라 해도 따를 만한 것이 있고 따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한가지 특이한 기사로는 1485(成宗 16)년의 극심한 가뭄과 기근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割注로 들어 있는 이 기록에 따르면 이해에 처음 經國大典이 반포되면서 改嫁女의 자손은 양반에 들지 못하게 했는데 이해에 가뭄과 기근이 심했다는 것이다. 그뒤 그들은 中人계층으로 되어 바로 書雲觀 관리 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특히 여기 남게된 것으로 보인다.

中宗은 1537(中宗 32)년 5월 가뭄이 들자 太廟 등 여러가지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 날 저녁으로 큰 비가 내렸다. 1629(仁祖 7)년 5월 임금이 친히 社稷에 기우제를 지냈더니 바로 비가 내렸다. 천막을 치고 우산을 바쳤으나 임금은 이를 뿌리치고 옷이 모두 비에 젖게 내버려 두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仁祖는 1638(仁祖 16)년 가뭄이 들자 관제자들을 불러 장시간 동안 억울한 형벌이 없었는지를 검토하게 했더니 하루가 지난 다음 크게 비가 내렸다.

거의 비슷한 경우로 肅宗도 정성스럽게 기도하여 다음날 비를 내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1714(肅宗 40)년 여름 가뭄이 심해지자 근심하던 임금이 분향하고 기도했더니 일어난 사건이다. 英祖는 1725(英祖 1)년 가뭄에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北郊에서 친히 기우제를 지냈더니 크게 비가 내려 임금의 옷을 다 적셨다. 1731(英祖 7)년 5월의 가뭄에도 英祖는 여러 기우제를 지내 효험을 얻었다.

(5) 災異와 弭災論

書雲觀志 卷 3 故事編의 첫머리에는 역대의 符瑞 災異에서부터 鳥獸草木의 이상한 현상에 이르는 것들을 曆象 등과 함께 기록한다고 밝혀 있다. 실제로 이 서론적인 소개 그대로 수 많은 災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기사의 수로 보면 반 이상이 災異기록이다. 앞에 소개한 가문 역시 災異의 중요한 한가지이지만, 여기 수집되어 있는 災異의 종류는 天文현상에서 비롯하여 지진, 海水, 화재, 동물, 식물에 관한 것까지 실로 다양하다. 이들 대개는 凶兆로 여겨진 것이지만, 그가운데 아주 일부는 祥瑞로운 것들의 기록도 포함돼 있다.

天文관계의 災異로는 日食, 月食, 彗星 등을 들 수 있다. 日食 기사로는 中宗 12(1517)년의 것이 있는데 日食이 일어나자 임금은 素服에 검은 띠를 두르고 仁政殿 계단에서 敎食儀를 실시했는데, 그 태도가 아주 극진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는 따로 日食기록이 없다. 月食 기록으로는 1689(肅宗 15)년 3월 16일 밤에 갑자기 예보되지 않은 月食이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때마침 饗食이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제사 후에 月食이 있어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閑居漫錄에서 인용된 기록인데 사실은 당시의 實錄에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月食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일 뒤에 있었던 숙종의 廢妃 선언을 애고하는 凶兆로 후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설로 보인다.

日食, 月食은 실제로 계산하여 미리 예보하고 있던 天文현상이었기 때문에 災異로서의 意外性이 없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59(世祖 5)년의 상소에서 인용되어 있듯이 『무릇 임금으로서 두려워 해야 할 것이 天이기 때문에 豫報될 수 있는 현상이라 하여 소홀할 수 없다』는 태도가 표면적으로는 살아 있는 현편이었다.

彗星이나 客星 등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天變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의 대상일 수 밖에 없었다. 1449(世宗 31)년 彗星이 燕 分野에 나타나자 日官이 이 彗星은 우리나라와는 無關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世宗은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근심했다. 이 대목에서 書雲觀志는 退溪의 [의견을 부록으로 삼입하고 있다. 災變이란 한 나라의 일에 응하여 그 나라에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두려워하고 반성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退溪는 이것이 마치 부모가 한 자식을 꾸짖는다 하여 다른 자식이 안심하고 가만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유하고 있다.

成宗은 1490(成宗 21)년 12월 彗星이 나타나서 承政院이 醺祭를 지낼 것을 건의하자, 이를 물리치고 修德이 중요한 일이지 祈禳에 힘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1577(宣祖 10)년 10월의 彗星에 대해서는 4가지 기록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본 기록은 이 별을 彗星같으나 彗星이 아닌 妖星으로 규정하고 꼬리가 수 10丈이나 되었다고 적고 있다. 이어서 栗谷日記, 牛溪集, 東閣雜記의 기록이 각각 인용되어 있다. 마지막 두 자료는 이 혜성이 아주 무섭게 보인 제이었고 석달이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은 것이지만, 李珣의 栗谷日記에는 흥미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災異를 李之嶠은 변괴가 아니라 瑞星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인심이 흉흉하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판에 이 별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세상이 조용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밖에도 1627(仁祖 5)년에 妖星 기록이 있고, 1770(英祖 46)년에는 客星이 나타났다. 또 流星(1436), 營頭星(1675), 蚩尤旗(1668) 등의 천문 기록이 보인다. 햇빛이 그 밝음을 잃었다는 기사도 몇차례 남아 있다.

당시의 기록으로는 天文과 氣象 현상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인의 기준으로 氣象현상에 속하는 것과 땅(地)에 얽힌 災異를 살펴 보자. 먼저 1404(太宗 4)년 吉州에서는 13일 동안 바닷물이 붉었고, 이듬해에는 여기 저기 江과 바다 물이 붉게 변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어서 1409(太宗 9)년에는 천둥, 번개가 심했고 4월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크기가 단환만큼 커서 한 사람이 맞아 죽

었다. 1422(世宗 4)년에는 巨濟에서 바닷물이 黃赤色으로 변하더니 작은 물고기가 떠 죽었다.

그밖에도 山이 울리며 무너졌거나 땅에서 불이 저절로 일어났다는 기록도 있고, 지진도 기록에 남아 있다. 大風이 나무를 뽑아 버린 사고도 있었고 흠비가 내리기도 했다. 또 1486(成宗 17)년 겨울처럼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았다는 기록도 보인다.

집중적으로 여러가지 災異가 나열된 부분도 있는데 1588(宣祖 21)년부터 漢江 물이 붉게 변하고, 日食, 月食이 있었으며, 밥솥이 소 울음을 내며 울었고, 서리가 내리고 홍수와 지진이 일어났다. 그밖에도 여러가지 災異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로는 1605(宣祖 38)년부터를 들 수도 있다. 이런 기록들의 집중은 壬辰 이래의 倭亂과 胡亂들의 조짐이라는 의미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災異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은 明示되지 않고 있으나, 앞에 인용한 李滉, 李珥의 경우처럼 여러 대목에서 災異論이 드러나 있는 수도 있다. 災異論은 모두 佛教의·道敎의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하늘을 두려워 할 줄 알고 政治를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맥락으로 되어 있다.

災異는 대개가 나쁜 조짐으로 여겨졌지만, 그 가운데에는 吉兆로 여겨졌던 경우도 몇가지가 있고 書雲觀志에도 이것이 다뤄져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462(世祖 8)년의 甘露와 白鹿을 들 수 있다. 그해 4월에는 後苑에 甘露가 내렸고 9월에는 白鹿이 나타나 百官이 축하를 드렸으나 임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로는 1426(世宗 8)년의 甘露를 들 수 있다. 황해도 관찰사가 甘露를 바치자 임금은 祥瑞 가운데에는 당연히 그럴 만한 경우도 있지만 결코 상서가 나타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수도 있다면서 이번의 甘露는 바로 뒤의 경우라고 단정했다. 世宗은 또 1445(世宗 27)년 甘露와 白鵲의 상서가 있었을 때에도 축하받기를 사양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상서로운 變異로는 기록해 둔 경우가 이 정도로 그 수도 적지만 그 모든 경우에서 임금은 이들전 통적인 祥瑞를 상서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근신하는 계기로 보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凶兆와 吉兆의 구분 없이 모든 災異는 유교적인 德治의 이상을 다짐하는 계기로써만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그밖의 기록

이 故事편에는 앞의 몇가지 이외에도 수많은 잡다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地圖와 書冊의 편찬에 관한 기사가 있다. 또 鑄鍾銘(1395)을 비롯하여 重建簡儀序(1601) 齊政閣記(1687) 自鳴鍾銘(1687) 등이 비교적 긴 글인데도 인용되어 있다.

지도로는 1402(太宗 2)년 歷代帝王混一疆理圖가 완성된 기록이 있는데 左政承 金士衡과 右政承 李茂가 중국의 지도를 참고해 만들었다는 설명이 權近의 글에서 인용되어 있다.

몇가지 책의 저술에 관한 소개에는 農事直說, 五行揔括, 歷代妖星錄이 있다. 農事直說은 지역에 따라 風土조건이 달라 농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찰사들에게 각 지역의 경험있는 老農들에게 체험에서 얻은 농업기술을 조사토록 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 책은 世宗이 1429(世宗 11)년 鄭招에게 담담케 하여 편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五行揔括은 역시 王命에 의해 徐居正이 1467(世祖 13)년 만든 책이다. 이 책을 편찬해 바쳤다는 기사에 이어 王과 徐居正이 나눈 대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 대화에 의하면 두사람은 四柱 등 운명예측 방법을 믿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즉 徐居正은 四柱를 보는 데에는 518,400 가지의 경우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다는 예를 들어 四柱 따위는 꼭 믿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임금이 동조했다는 것이다. 推命法에 대한 成周惠 등 당시 지식층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목으로 보인다. 歷代妖星錄은 農事直說과 더불어 지금 남아 있는 책인데 1664(顯宗 5)년 혜성이 나타난 것을 계기로 副司直 金益廉이 역대의 星變기록을

모아 임금에게 바친 것이다.

1650(孝宗 1)년 기록으로는 임금이 水車를 만들어 보급하라는 教旨를 내려 이에 따라 10具의 水車가 제작되어 8道兩都에 보내졌다는 것이 있다. 이와는 달리 상당히 황당스런 기록도 적지 않아서 1457(世祖 3)년 기사에는 世祖가 首陽大君이었던 시절에 이미 어느 나이든 觀象監 관원이 그의 임금될 것을 天文을 보고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1568(宣祖 1)년 경연에서 임금은 아주 박학한 것으로 알려진 柳希春에게 왜 쥐처럼 천한 동물이 六甲의 첫 자리를 차지한 것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쥐의 발가락이 앞발에는 4개, 뒷발에는 5개씩이 있다면서, 이것은 陰陽이 半씩 섞인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한밤중에는 陰이 다하고 陽이 생겨나는 때이기 때문에 子(쥐)를 十二時의 처음으로 삼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王은 기이하게 여겼다고 竹窓閒話에서 인용된 이 기록은 전하고 있다.

(7) 故事 부분에 대한 평가

書雲觀志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故事의 기록은 앞에 훑어 본 것처럼 실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에서 몇 항목으로 분류하여 그 대강을 소개했지만, 많은 부분은 생략될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 특성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음 몇가지 점은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첫째, 故事편의 기사는 어떤 일관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심지어 書雲觀의 제도와 관측기기의 발달에 대해서조차 철저한 자료의 수집, 정리가 돼 있지 않다. 하물며 日食, 가뭄 등의 자연현상에 대한 기록도 대상기간에 대해 철저하게 자료를 모아 놓지 못한 채로 이 부분이 편찬되었다. 여기 포함된 기록은 朝鮮王朝가 개창된 1392년부터 1811년 사이의 것들인데 이 기간의 기록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만이 여기 제시되고 있다.

둘째, 가장 근본적인 기사 선택의 기준은 분명히 儒敎의 價値觀의 고취에 있었다. 불교나 도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土俗의 신앙체계에 대한 논평등이 그리하고, 災異論 가운데도 災異를 유교적 정치사상에 바탕을 두고 해석한 것들이 압도적이라는 사실로도 알 수가 있다.

셋째, 君主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 보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연 君主들이 유교적 德治에 부지런하며, 災異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반성하고 정치에 더욱 勉勵하고, 혹시 祥瑞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상서로운 일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의 태도가 에찬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燕山君과 光海君의 재위기간 중에 있었던 기록이 거의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燕山君代의 기록은 아예 생략돼 버렸고, 光海君 때의 기록은 여러가지가 나열돼 있기는 하지만, 仁祖代의 기록 가운데 附錄되어 있다.

넷째, 書雲觀員이 천대받게 될 수도 있는 제도의 등장을 비판한 듯한 대목이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1485(成宗 16)년 經國大典의 반포 이후 改嫁女의 자손은 양반이 될 수 없게 규정되었는데 이해에 크게 가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바로 中人계급의 등장과정에 대한 간접적 비판이었다고 생각된다.